

광주 찾은 이용훈 대법원장

‘위기론’ 왜 언급했나

# ‘사법부 신뢰회복’ 단호한 의지

### 15년만의 순시... 변화의 바람 일으켜 구술·공판 중심주의 활성화 당부도

13일 광주를 찾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 위기론’ 까지 언급하면서 시종일관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대법원장의 일선 법원 초도순시는 지난 1991년 5월 김덕주 대법원장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장의 초도 순시 자체가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 대법원장이 지방 법원 순시를 나섰고, 법관들과 직원들에게 국민신뢰 회복을 촉구한 것은 최근 불거진 부장판사 밭조 비리 등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들의 뜨거운 시선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사법부 수장의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관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전달해 밭조비리의 뿌리를 척결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으로 시작된 이번 전국 법원 초도순시라는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광주고법과 지방 법관들, 법원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순사에서 “국민은 이미 사법부에 씩씩하다고 할 정도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고 말해 최대 위기에 빠진 사법부 현실을 스스로 비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도둑놈’이라는 원색적인 용어를 들어가며 법관과 법원 일반직 직원들의 맹성을 촉구했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초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겠다”면서 사법부 개혁을 외쳐왔던 ‘밭조 비리’라는 말

초에 직면하면서 스스로 위기의식에 힘써왔다는 것이 법원쪽의 분석이다.

사실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외면적으로 법원의 민원실 문턱이 낮아지고 친절도도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잇따라 터진 밭조 비리 사건으로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은 극에 달해졌고, 더 늦을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 대법원장의 이번 ‘사법부 위기론’ 언급은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관들에게 구술·공판 중심주의를 활성화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판사들이 판사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야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하면 재판 변호사나 브로커를 통해 판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는 법

조 비리가 법조계에서 사라진다는 게 이 대법원장의 말이다. 또한, 이 대법원장은 검찰과 갈등이 있더라도 구속영장 발부를 신중히 하라고 강조하는 등 국민의 편에서 법원이 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압수수색영장을 너무 쉽게 발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범죄 단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영장 발부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혹 검찰과의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영장발부는 신중하게 해야한다”며 검찰의 자인명시 수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초도 순시차 13일 광주를 방문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모교인 광주일고를 방문해 학생운동기념탑을 참배하고 재학생들과의 대화를 나누던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헌해기자 choi@kwangju.co.kr

## 47년만의 ‘금의환교’

〈錦衣還校〉

### 이용훈 대법원장 광주일고 찾아 “헌신적 삶 살아라” 후배들 격려

지난해 9월 사법부 수장에 오른 이용훈 대법원장(64)이 13일 고교 졸업 47년만에 ‘금의환교(錦衣還校)’했다.

초도 순시차 광주를 방문한 김에 정든 모교인 광주일고를 찾은 이 원장은 1시간 남짓 교정 곳곳을 둘러보며 반세기 전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새겼다.

‘새까만’ 후배들의 박수와 백발 동창들의 환대 속에 교정을 찾은 이 원장은 “1959년에 졸업한 뒤 첫 ‘등교’라 만감이 교차하고, 지난 추억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고 말했다.

동기동창 유찬영(64·택시회사 운영) 씨를 만나고서는 반가운 표정으로 잠시 “오랜만에 모교를 찾았는데도 친구들과

식사 한 개 제대로 못해 미안하다”며 남다른 우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중관 교정의 안내로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 현화·분향한 뒤 기념역사관을 둘러보면 이 원장은 전시관안에 놓인 빛바랜 교복과 배지, 낡은 졸업앨범 등을 보며 고는 연신 감회어린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어 ‘학생들과의 대화’에 나선 이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학생회장 최하을(18)군의 질문에 “‘홀통합’의 기준은 부(富)나 개인적 영달이 아닌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며 “내면적 변화와 이를 토대로 한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 달

라”고 당부했다.

동기동창인 임재정 국회의장의 모교 방문 한달여만에 또다른 3부 요인 중 한 명인 대법원장의 방문이어서 동문과 재학생 모두 들뜬 분위기였다.

동창회 상임고문인 정관담 전 전남대(64)교수는 “입법부 수장에 이어 사법부 수장이 탄생해 기쁨이 두 배”라며 “법관에 첫 부임할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사법개혁에 힘써 바치를 가해 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모교 방문 길에는 동문인 김관재 광주지법원장과 정갑주 제주지법원장, 오세욱 전주지법원장 등이 함께 해 ‘미니 동문회’를 방불케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현직 공무원 선거후보 신청 정치중립 위반이다? 아니다?

현직 공무원의 선거후보 신청을 놓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는 13일 신안군수 재선거 공천을 신청했던 권흥택 광양부시장과 최창원 화순부군수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제출했다.

전공노는 진정서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정당공천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법과 정당법,

당 공무원들의 ‘표면적인’ 행동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 상태에서 단순히 정당 후보 공천에 응한 사실 자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처벌 조항도 없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도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 행사에 참여한 구체적인 행위가 밝혀지면 당연히 처벌과 징계가 따르지만, 공천을 신청하고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만을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단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일부지역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당활동에 참여한 것은 당연히 위법사항이어서 행사 처벌과 징계가 불가피하

### 광양부시장·화순부군수 공천 신청 전공노 전남본부 수사촉구 진정서 선관위·전남도선 “처벌 조항 없다”

선거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또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강압에 의해 정당에 가입했다가 처벌을 받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행의정 감시 전남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전남도, 해당 부단체장은 공식 사과하고 정당 공천신청 등에 따라 빚어진 행정공백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을 유지한 채 공천 신청에 나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조항 저촉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나 전남도는 해

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현직을 유지한 재선거준비를 위한 사실상의 ‘정치행위’에 나서서 것을 못본 채 그냥 두어야 하는 것은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정당 후보신청 자체부터 엄연한 정치참여라는 포괄적인 해석에 따라 목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인사들이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천을 신청함에 따라 전남도의 부단체장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불러왔고, 후보 확정단계에서 행정공백 사태까지 노출돼 분명한 선을 긋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여수박람회 유치 국회차원 적극 지원”

국회 2012세계박람회(EXPO)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3일 전남 여수를 방문, 박람회 후보지를 둘러보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특위 위원 8명은 이날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시와 전남도로부터 박람회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비해 여수 EXPO 유치 활동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여수를 중심으로 숙박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신중석 의원은 “4년 전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인기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해수부를 비롯해 국무총리 산하 정부지원위원회

### 국회 유치특위 위원 8명 여수 방문



와 중앙유치위원회 그리고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오는 11월 8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모로코의 탕헤르시는 여수보다 도시 경쟁력이 훨씬 뛰어난 반면, 유입인들이 선호하는 휴양도시로 유럽과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이 합세하면 과거 중국의 상하이(上海)보다 더 큰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zpark@

전남 최정권 국왕을 신격히 찬양하면!

# 호남최고의 명당! 가족봉안묘원 특별분양!

10주년 기념 특대 할인 혜택!

10년만! 호남최고의 명당! 특별분양!

호남최고의 명당! 가족봉안묘원 특별분양!

호남최고의 명당! 가족봉안묘원 특별분양!

호남최고의 명당! 가족봉안묘원 특별분양!

호남최고의 명당! 가족봉안묘원 특별분양!

호남최고의 명당! 가족봉안묘원 특별분양!

호남최고의 명당! 가족봉안묘원 특별분양!

호남최고의 명당! 가족봉안묘원 특별분양!

호남최고의 명당! 가족봉안묘원 특별분양!